54분간의 비행… 10시 9분 재회… 3시 45분 정상회담

서울 출발서 환영 만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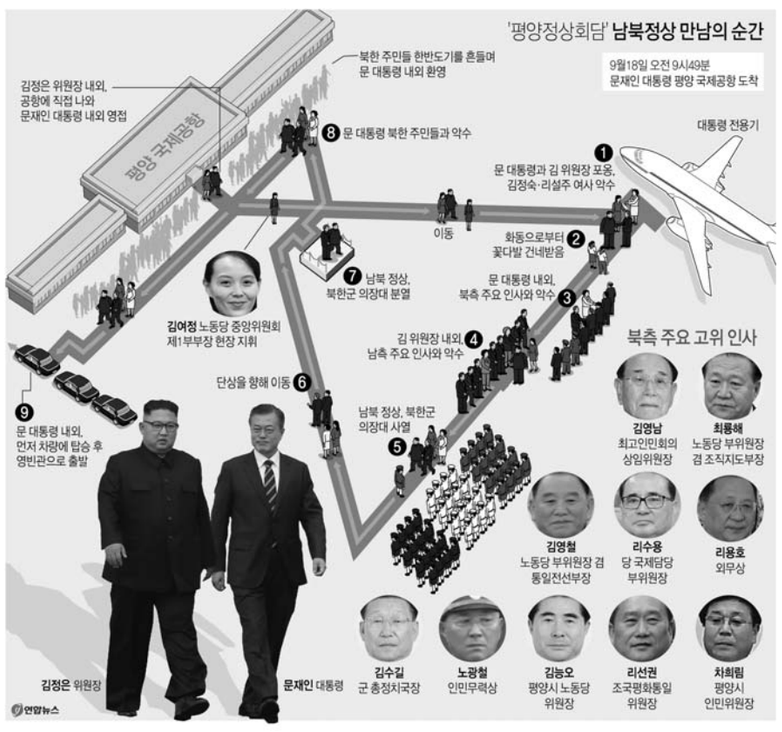
순안공항 모인 평양 시민들 한반도기 등 흔들며 환영 남북 정상 내외 뜨거운 포옹 환담 후 따로 오찬 뒤 휴식

11년만에 이뤄진 남측 대통령의 북한 평양 방문에서는 파격적인 장면이 계속해서 연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8시5분께 감색 양복에 흰 셔츠, 갈색 스트라이프 타이 차림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참모와 청와대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청와대 관저를 나섰다. 8시15분께 문 대통령 내외를 태우고 청와대를 출발한 헬기는 10분가량 후인 8시25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문 대통령과 일행은 서울공항 내 귀빈실로 이동해 잠시 대화를 나누다 8시37분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과 전용기를 향해 걸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흰색 투피스 차림의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전 8시40분께 평양행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전용기는 8시55분 힘차게 이륙했으며 그로부터 54분 비행 후인 9시49분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했다.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직접 공항 활주로까지 나와 영접했으며 양 정상은 오전 10시9분 뜨거운 포옹으로 재회의 감격을 나눴다. 양 정상은 양측의 수행원과 인사를 나눈뒤 환영 행사에 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화동의 꽃다발을 받은 뒤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공항 의전행사는 국가 원수나 원수급에 준하는 최고예우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인민군 의장행사 때 국가연주는 생략됐으나 21발의 예포도 발사됐다.

의장대 사열 이후 문 대통령은 활주로에 마련된 사열대에 김 위원장과 함께 올라 인민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분열을 받았다. 이날 순안공항에는 평양 시민 수천 명이 나와 인공기와 한반도기, 조화 등을 흔들며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한 것은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환영 인파 속에서 오른손을 들어 흔들며 인사를 했고 북한의 몇몇 환영객들과는 직접 악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마중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에 탑승하기 앞서 문 대통령은 잠시 멈춰 김정숙 여사와 함께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양 정상은 오전 10시20분께 공항을 떠나 오전 11시17분에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했다. 예정됐던 11시보다 17분 정도 늦어진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와 환담을 나눈 후 따로 오찬을 했다. 양 정상은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예정보다 15분 늦은 오후 3시45분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 김정숙 여사는 대동강 구역 소재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대동강 구역에 소재한 북한 작곡가 '김원균' 이름을 딴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했다.

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들은 평양 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관람했으며 이후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공식수행원, 특별수행원, 일반수행원이 모두 참석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청와대 측은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은 이날이 처음이며, 김 위원장 부부가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당 본부청사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위원장 부부 공항 영접·21발 예포 발사·동승 카퍼레이드

김정은 위원장 파격 환대

평양 시내서 문 대통령과 무개차 동승…내려서 걷기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문재인 대통령을 파격 환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내외가 순안공항에 착륙하자 부인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전용기 문이 열리고 문 대통령 내외가 등장하자 김 위원장 내외는 손뼉을 치며 밝은 표정으로 문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또 문 대통령이 트랩을 내려와 다가서자 두 팔을 벌려 문 대통령을 반갑게 포옹했다.

특히,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예포 21발을 쏘며 역대 최고 수준의 극진한 예우를 갖췄다.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올해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도 개최 측이 준비한 의장대 사열 등의 의전행사가 있었지만, 예포는 발사되지 않았다. 예포 발사시에는 상대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관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기게양 의식은 생략됐다. 예포 발사는 남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 수만 시민을 동원하고 카퍼레이드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숙 여사와 리무진에 올랐으나 평양 시내 중심지로 들어가는 입구인 서성구역 버드나무거리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무개차에 동승해 평양시민의 연도 환영을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이 연도 환영은 순안공항-3대혁명전시관-영생탑-려명거리-금수산태양궁전-박화원영빈관까지 수 킬로미터에 달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3대혁명전시관 주변에서 멈춰 서자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다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를 넘겨받았다. 두 정상은 한동안 걸어가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이어 무개차에 동승했다. 21대의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며 무개차에 오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시민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했으며 퍼레이드 도중 두 정상은 종종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정상회담 방북 당시 카퍼레이드를 펼친 바 있지만 당시 노 대통령과 함께 탑승한 이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카퍼레이드는 양국 정상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최초임과 동시에 파격 환대로 꼽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 북경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으나 평양에서의 회담은 처음"이라며 이날 '공항 영접'에 대해서도 "외국 정상회담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환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오후 정상회담 장소는 조선노동당 본부청사"라며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엔총회도 개막… '북핵 외교전' 주목

문 대통령 다음주 뉴욕 방문

세계 196개국 대표가 모이는 제73차 유엔총회가 오는 18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도 사실상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유엔총회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다.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일반토의에는 국가원수 97명, 부통령 4명 등 196개 회원국 수석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주 뉴욕을 방문한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현재로써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 '북핵 외교전'이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북미가 거센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지만, 올해는 밀고 당기는 북핵 협상과 맞물려 치열한 '외교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임동욱 기자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삽니다. 010-6834-7400

투자자모심
공동투자가능/월15%이상 수익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오천경매 대부.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엘도라도인근 602㎡ 5천만원
• 영암 금정면 저수지부근 땅 1816㎡ 감나무농장·사찰 적합 84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전북 순창군 복흥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1868㎡ 찻집등적합 1억3천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접 대지 149㎡ 2층주택 115㎡ 1억3천
• 서구 쌍촌동 2층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운천저수지부근 2억7천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해제면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신고 3억5천 매도 3억
• 영광 홍농읍 주거지 5223㎡ 공시지가 6700 매도 8500
• 나주시 동수동 자연녹지 12076㎡ 교통 좋음 14억7300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찰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 금남로 5가역 대로접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층 상가주택적합 1억3천
상가건물
• 고흥 나로도인근 팬션 땅 6891㎡ 건평 267㎡ 객실10, 은행3억, 7억5천
• 여관 목포시 옥암동 땅 439㎡ 건물 989㎡ 객실26 은행 4억 매도 7천만
• 북동 토지 538㎡ 건물 1933㎡ 은행 9억2천 매도 1억 6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팬션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업잘됨 3억천
• 목포시 북항 푸드타운 1층 91㎡ 은행 9천 매도 · 교환 3억4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최적 65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